보살의 길 가야 부처 된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⑩ 일미평등법(一味平等法)

"나는 일체를 모두 평등하게 보며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하는 일이 없으며, 탐착이 없고 한쪽에 치우쳐 걸리는 일 없이 언제나 일체중생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느니라, 한 사람 위하듯이 여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항상 법을 설하는 일 외에 다른 일 없으며, 가건 오건 앉건 서건 지칠 줄을 모르고, 세상을 채워주는 것이 비가 만물을 적시듯 하여 귀하고 천하거나 신분이 높고 낮거나 계를 잘 지키거나 계를 훼손하거나 위의를 갖춘 자이거나 못 갖춘 자이거나 정견 · 사견과 이근(利根) · 둔근(鈍根)에 똑같이 법의 비를 내려주느니라.

온갖 중생이 나의 법을 들은 자는 능력에 따라 여러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인간 세상의 사람과 천신이거나 전륜성왕과 제석과 범천의 왕이 되는 것은 작은 약초요,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얻으며 육신통을 일으켜서 삼명(三明)을 얻거나, 홀로 산림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아 연각을 얻는 것은 중간 약초요, 세존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내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여 정진, 선정 닦는 것은 최상의 약초이니라.

또 여러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실천하여 스스로 부처 될 줄 알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작은 나무요, 신통에 안주하여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는 백천 억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보살은 큰 나무이니라. 부처님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는 것은 하나로 내리는 비와 같고 중생이 성품 따라 받는 바가 다른 것은 초목들이 빗물을 흡수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이 이 비유로 방편의 문을 열어 보여 가지가지 말을 하여 한 법을 설하나니, 부처님 지혜에선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내가 법우를 내려 세상을 채워서 일미의 법을 능력 따라 받아 닦고 행하는 것이 저 숲의 약초와 여러 나무들이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들 가르침은 언제나 한 맛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루 갖추어 점차로 수행하여 모두 도의 열매를 얻도록 하느니라.

성문 · 연각이 산림에 살며 최후신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과를 얻는 것은 약초가 제각기 자라는 것과 같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의 이치를 통달해서 최상승법을 구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고, 다시 선정에 머물러 신통력을 얻고 제법의 공한 이치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해 무수한 광명을 놓아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 가섭아, 부처가 법을 설하는 것은 큰 구름이 똑같은 한 맛의 비를 내려 사람의 꽃을 적셔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아, 잘 알아라. 여러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써 부처의 도를 열어 보인 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최상의 가장 진실한 것을 말하리니, 성문들은 모두 완전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행할 것은 보살의 도이니 점점 닦아 배우면 모두 다 부처가 될 것이니라."

〈약초유품〉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이 대목은 부처님 설법이 차별 없는 일미평등법(一味平等法)임을 말하고, 보살의 수행이라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문들의 경지가 완전한 멸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살의 도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크고 작은 약초와 나무에 비유하여 수행의 경지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병에 따라 약품을 쓰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법이 설해지지만 법을 설하는 근본 목적은 중생이 부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일승(一乘) 곧 불승(佛乘)이다. 똑같은 비를 맞고 약초나 나무들이 종류에 따라 자라는 크기가 다르듯이 일미(一味)의 법문을 듣고 얻는 수행의 경지가 다르다는 것은 곧 법은 평등하지만 중생의 근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중생의 마음이 본래 대승(大乘)이라 한다. '대승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선언한 것은 〈대승기신론〉에서다. 〈법화경〉에서는 대승의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고 이 수행을 통해 성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을 대승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독성 음주, 악행 근원 될 수 있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⑩ 불음주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다섯 번째인 불음주계(不飮酒戒)는 부주의를 야기하는 음주(飮酒)를 절제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계를 앞의 네 가지 계보다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이는 이 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우선 기분 전환을 위해 가볍게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음주는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오히려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더 부자연스럽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대체로 음주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경우는 기쁨을 만끽할 때보다 슬픔을 가라앉히거나 아픔을 잊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많은 이들이 상쾌한 기분을 얻거나 일시적이고 거짓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술에 중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는 술뿐만 아니라 마약과 환각제 등과 같은 중독을 야기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금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상습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 부주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가 완결되어 계를 위반하는 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술처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이며, 둘째는 이것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며, 셋째는 이것을 섭취하는 시도이며, 넷째는 실제로 이것을 섭취하는 것이다. 일부 경전에서는 병든 승려를 치료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조차 금지한다. 비록 술의 양이 적을지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독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술이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심신을 왜곡시켜 분별력과 경계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런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록 음주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언가에 취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누구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한 불자라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하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정신적인 명료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사물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시 말해 팔정도(八正道) 가운데 정념(正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음주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중독을 야기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늘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⑩ 고대 인도의 암기법

어떻게 경전 통째로 암송했을까?

현재에도 인도인들은 뛰어난 암기능력으로 주목받는다. 어떤 인도 어린이는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정도는 통째로 외운다. 석가모니 당시에는 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방대한 문학들이 존재했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불경도 처음에는 그렇게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시대 이전인 베다 시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양상은 조금 달라진다. 베다 문헌들은 불경과는 달리 대체로 '한 구절도 어긋나게 암기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신의 계시 문학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베다 지식인들은 그 경전 구절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는 특정한 암기법을 고안해냈다.

문자가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경전을 통째로 암송한다는 것은 원래의 단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학습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스승이나 아버지는 제자나 아들에게 무조건 자신을 따라 암송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민한 아이는 그것을 즉시 흉내내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암기해 낼 수 있다. 암송을 통해서 리그베다의 내용들을 전승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 한국 학생이 영어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외국어 팝송의 '소리'만을 멋지게 따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 팝송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이다. 퀸(Qeen)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를 리그베다의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보자.

"마마 젓스킬더맨 푸러건어겐씨셋"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기록하지 않고 소리만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노래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를 의례상황에서 실제 발성할 때는 본래의 각각의 단어들이 뭉쳐 흐르면서 덩어리 음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상히따-빠타(saṃhitā-pāṭha)라 부른다. 상히따-빠타는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가사는 "마마 저쓰킬더맨 푸러건어겐히데"와 같이 발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소리내 외워서 전승해야할 학생들은 잘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 음들이 본래 각각 무슨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 덩어리 음들을 잘라서 암송할 때의 흐름에서 떼어내 각각 따로 따로 발음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래의 문장형태와 의미를 나중에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는 "마마 저스트 킬드 어 맨, 어 건 어개인스트 히스 헤드"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빠다-빠타(pada-pāṭha)이다.

문자 없이 암송으로만 지식이 유통되는 사회에서, 빠다-빠타는 전승의 내용이 되고, 실제 사용형태는 상히따-빠타가 되는 셈이다. 빠다-빠타 형태의 모든 경전구절들을 음절의 손상 없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고대 인도인들은 독특한 암기법을 고안해냈다. 이것을 비끄리띠(vikṛti) 또는 즉 문장변형방식이라고 한다. 이 비끄리띠는 문장의 단어들을 빠다-빠타 형태로 각각 분리시킨 후, 여러 방식으로 뒤섞어 문장을 만든 다음 그것을 다시 외우는 여러 형식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마 저스트 킬드 어 맨". 이것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빠다-빠타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대략 10가지 방식의 뒤섞임 방식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자따' (jaṭā)-빠타는 다음과 같다.

"마마(A) 저스트(B), 저스트(B) 마마(A), 마마(A) 저스트(B), 저스트(B) 킬드(C), 킬드(C) 저스트(B), 저스트(B) 킬드(C), ..." 문장의 맨 앞 단어와 그 다음 단어를 병렬했다가(A-B) 뒤집고(B-A) 다시 원위치(A-B)시킨다. 그다음 세 번째 단어(C)가 등장하면 두 번째 단어와 이러한 방식을 반복한다. 이같이 한 문장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단어 섞음을 통해 연음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단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단어의 원래 음가를 정확히 기억하도록 훈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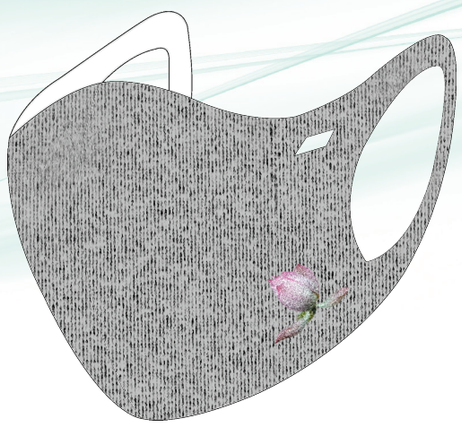
이러한 구전 문헌에 대한 보존의 집요함은 인류문명사 속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베다는 거의 3천년 동안 고스란히 전해진 구전문학의 결정체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